

# DJ의 삶과 닮은 용연학교의 희망은 계속돼야 한다

의정단상

강수훈  
광주시의원



“저는 용연학교가 광주에서 가장 큰 중학교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중한 학교’라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연학교 학생들과 故 김대중 대통령의 삶이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용연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한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곳에 와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공부해 90%가 넘는 진학률을 자랑할 정도로 선생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평생 동반자였던 이희호 여사께서 강연 중에 하신 말씀이다. 용연학교는 2008년 오갈 데 없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100인의 현직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설립한 중학교 과정의 국내 최초 위탁 대안학교다. 그 용연학교가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현재 용연학교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광산구 신장동의 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 4월 광주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을 학교 형태의 용연학교와 돈보스코로 일원화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용연학교의 이전지에 관심이 몰렸다. 용연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의 상황과 교육 시스템,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이 중요한데도 시교육청은 용연학교 향방에 대해 복지부동 자세다. 용연학교의 이전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수렴과 방안이 모호했다는 지적에서 사실상 시교육청이 용연학교의 폐교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에이. 설마. 용연학교가 처음 만들어질 때 15년 된 폐교를 임대하고, 뜻을 함께한 교사들이 모여 직접 학교를 수리할 만큼 많은 맘과 노력이 들어간 학교 아니던가. 대한민국 최초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장기 위탁교육 하는 학교라는 명성답게 벤치마킹을 위해 전국에서 다양한 기관이 방문할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아온 학교 아니던가. 그런데 그 학교를 없앤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특히 몇몇 사람의 작당 모의로 추진된다면 그 역풍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려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모양새다.

최근 용연학교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이전을 위해 필요한 부지 확보 등을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묵묵부답이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용연학교 폐교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만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시교육청과 용연학교 사이에서 직접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용연학교의 선생님과 학부모, 관계자들조차도 학교의 앞날을 주변인들로부터 소문으로 듣고 있는 것이 전부다.

시교육청은 오랫동안 부적응학생 교육을 맡아온 금란교실을 폐지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했다. 시교육청으로부터 금란교실을 폐지하겠다는 발표가 처음 나왔을 때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시교육청의 일방적인 금란교실 폐지에 대해 반발하며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교·교사·학부모 등 교육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점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야 할 큰 오점이었다.

일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우는 교육, 개인의 특성에 주목하기보다 획일적인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에 실망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한 번쯤 대안학교를 생각해 본다. 그런데도 뚜렷한 대안없이 있는 학교조차 방지하고 몰아세우는 것이 광주 교육이 지향하는 보편적인 참교육일까?

각종 논란이 소모적이라고 판단해서 소통을 피하다 보면 점점 갈등의 한복판에 서게 되고 결국에는 길을 잃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흔히 이런 경우를 ‘쓰레기차 피하러다 똥차를 만나는 경우’가 된다고 말한다.

시교육청은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용연학교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학교 운영 방향과 대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 정책 결정에 관여 중인 시교육청 관계자에게도 간청한다.

지역 사회에서 용연학교를 더욱 활성화하는 길을 찾는 것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다.

## 社說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나서야

단, 7일부터 또 다시 오염수 방류

일본이 지난 7일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핵 오염수의 8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오는 24일이면 일본이 핵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 앞으로도 최소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방류될 막대한 핵 오염수는 지구촌 해양 생태계는 물론이고 인근 국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8일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오염수 방류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모두 7800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24일부터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해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모두 7차례 방류를 통해 총 5만 4600톤의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낼 방침이다. 이번 8차 방류는 2024회계연도 4번째 방류다. 도쿄전력은 올해 해역 모니터링 결과 해수의 트리튬 농도가 발전소 10km 사방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 3km 이내에서는 리터당 최대 29 베크렐, 최대 7.7베크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일본이 바다에 방출한 오염수는 5만 4734㎥에 이른다. 이 기간 방출된 트리튬 총량도 약 8조 6000억 베크렐에 달한다고 한다. 연간 방출 기준총량인 22조 베크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이 내세운 ‘기준치’나 ‘과학’이 원자력 옹호자들의 기준이나 과학일 뿐, 삼중수소가 가진 위험성을 감안하면 쉽게 넘길 일 아니다. 주일중국대사관도 이날 무책임한 해양 방류 조치에 대해 확고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오염수 방류가 일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게 주일중국대사관의 설명이다.

일본의 주장처럼 ‘안전한 해양방류’는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본과 인접하고 전국 최대의 수산물 생산지인 전남의 어민들이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국제 사회의 우려를 무겁게 듣고 방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식품의 철저한 원산지 단속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 기록적 폭염 피해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가축 폐사 온열 질환 등 잇따라

3주째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가축과 어류 폐사가 30만 마리를 넘어섰고, 피해액도 3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온열질환자도 3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언제 잦아들지 모르는 폭염, 인명과 가축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까지 폭염 피해는 가축 폐사 10만 2464마리, 어류 폐사 25만 5000마리로, 피해액은 가축 13억 2100만 원, 어류 3억 1800만 원 등 모두 16억 3900만 원에 이른다. 양식장 피해도 발생해 고흥군 두원면 한 육상양식장에서 강도다리 20만 마리와 낚치 5만 마리가 폐사해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다. 여수 해역 일대에 고수온 경보와 적조 예비특보가 발표되면서 8일에는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여수를 찾아 고수온과 적조 대응 상황을 살피기도 했다. 20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광주·전남지역 온열질환자도 3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7일이 입추였지만 폭염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기상청도 오는 16일까지 중기 예보를 통해 일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고 무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나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1개월 전망에서도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불러온 최악의 열돔 현상으로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온열질환 예방체계부터 가축재해 보험까지 광주시와 전남도, 각 지자체가 다양한 폭염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지만 이 걸로 피해를 제대로 막을 수는 없다. 특히 취약계층이 무더위 속에 방치되면 최악의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다. 3.3㎡ 남짓한 방에서 고립된 취약계층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 대한 개개인의 관심이 필요하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가축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7일(현지시각) 미 조지아주 풀러에서 한 주민이 열대성 폭풍 ‘데비’가 몰고 온 폭우로 침수된 거리의 깊이를 측정하고 있다. AP/뉴시스

### 서석대

“나에겐 너무 큰 영광이고 행복이다.” 1981년 4월 3일, 김포공항에서 서울시청까지 오픈카를 타고 카퍼레이드에 오른 황선애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 해 4개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며 ‘동양의 헤성’으로 떠올랐던 황선애.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는 나흘 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됐던 세계 최고 권위의 전영오픈까지 석권했다. 이 대회 3연패를 노리던 덴마크 르네 코펜을 만나 2세트, 단 3점만 내주고 20분만에 끝낸 2대 0 완승이었다. ‘황선애가 골목길 놀이에 불과했던 대한민국 배드민턴을 엘리트 스포츠로 격상시켰다’는 것이 당



시 언론의 평가였다. 하지만 황선애에게 1981년은 불운의 시작이었다. 한국 체대 1학년, 19세의 황선애는 정치권과 언론의 기대에 맞춰 무리하게 경기를 치르면서 수많은 부상에 시달렸다. 1982년에는 손가락 부상으로 일본오픈과 덴마크오픈에서 3위에 머물렀다. 그 해 6월 열린 종별대회에서는 허리를 다쳐 대표단에서도 제외됐다. ‘선천적으로 허리가 약한데다 계속되는 경기로 인한 무리 때문이었다’는 게 의료계의 진단이었다. ‘배드민턴계의 신데렐라’로 불릴 만큼 화려했던 선수 생활도 1년여 만에 접어야 했다.

배드민턴은 엄청난 스피드에 실리는 셔틀콕의 파워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빠른 움직임과 갑작스러운 방

향 전환도 무릎과 발목 관절에 부담을 준다. 서비스와 스매시, 클리어 등 배드민턴 특유의 기술도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어깨와 팔, 손목에 악영향을 미친다. 스페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면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차례나 우승했던 스페인의 카를리나 마린이 지난 5일 열린 파리올림픽에서 기권패 했던 것도 무릎부상이 원인이었다. 배드민턴 남자 단식 레전드로 세계배드민턴연맹 명예의 전당에 오른 중국 린단의 은퇴 이유도 부상이었다.

### “힘내 안세영”

2024년 파리올림픽 정상에 오른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제기한 배드민턴협회의 독선과 안일한 부상관리 등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안세영이 보여줬던 후천이 ‘분노’ 때문이었다는 것이고, 협회가 파문을 수습하려는 것보다 ‘반박’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안세영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훈련일지 마지막에 ‘나는 빛날 수 있어. 빛날 거야’라고 썼다고 한다. 배드민턴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견디겠다는 안세영. 부상 관리와 선수 보호라는 당연한 주장으로 누구보다, 어느 때보다 마음 고생이 심할 안세영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너는 빛날 수 있어. 그리고 빛날 거야. 힘내 안세영.”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